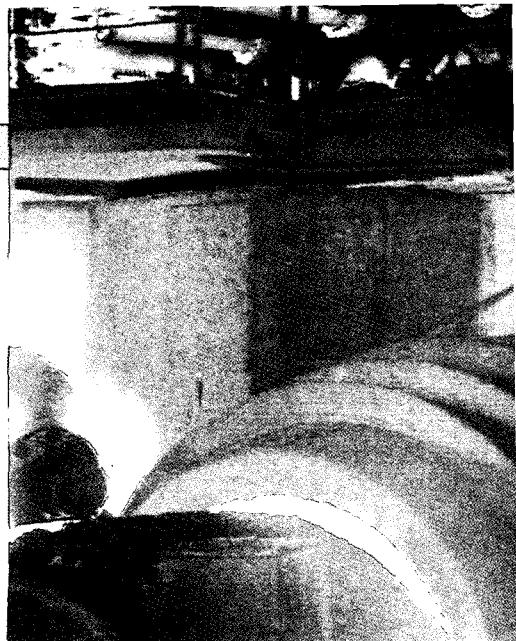


3D가 종업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있어 왔다.
어렵고 힘들고 구질구질한 것은
안해 왔다. 쉽게 돈 벌고
제품의 기술 개발에 힘쓰지 않았고
어려운 일 피해서 운영해온
것은 사실이다.

산업체에 바란다 I



김기완
경북대 공대 학장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산업사회가 된 것은 국가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덕택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는 실제로 30여년의 짧은 경륜임에도 이만큼 성장한 것은 세계 역사상 특이 할 만한 일이고, 실제로 주변 국가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국민의 근면성과 성취욕은 남달리 드높아서 고속 성장의 원동력은 되었어도 그에 따라 사회 여러면에 나타나는 부정적 부작용도 인정해야 하고, 현실의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1960년대의 산업사회를 이끌어 간 지도자들의 돌출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큰 역할을 했고 온 국민의 주시속에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산업체 대부분은 특히 대기업체일수록 너무나 많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혜택을 누려온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 세제, 제품의 보호판매(애국심에 호소됨), 특히 큰 권한을 누리면서 종사원들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 큰 혜택이다. 거의 온실속에서 자라온 것이다. 최근에는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용 제품의 개발이 힘들어지니까 늘 누려오던 혜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책임을 주위로 돌려 찾으려는 습관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3D가 종업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있어 왔다. 어렵고 힘들고 구질구질한 것은 안해 왔다. 쉽게 돈 벌고, 제품의 기술 개발에 힘쓰지 않았고 어려운 일을 피해서 운영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 우선 그것을 해쳐 나갈 생각보다 딴곳에 그 탓을 돌리려는 것이다. 우선 대학 졸업생을 뽑아서 지금까지 써 오다가 이제 이 상황이 되니 우리나라의 공과 대학교육이 부실해서 자기 회사에서 제몫을 시작하려면 2년이 걸린다고 그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야단들이다. 우리나라의 공대 졸업생들만 그런 것인가? 선진국에서도 그 기간이 1년 내지 1년 반 소요된다고 듣고 있다. 그래서 20년 전 1970년대 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몇몇 공과대학을 특성화시켜 그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짧게 하자는 시도가 있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고, 기업체에서는 그간에 자기 사원들의 교육을 입사후 선진국 기업체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물론 우리나라 공학교육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일본의 동

경대학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때 36위라 한다.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는 몇위나 될까? 이런 것이 대학 만의 잘못인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었겠지. 그러나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것 보다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충실했다고는 할 수 없었고, 특히 기업체가 학교교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최근호 일간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다. 하버드대학, 카네기콩대, 스탠포드 대 등 유명한 대학을 개인이 설립해서 사회에 바쳤고 특히 캘리포니아콩대는 설립자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대학행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시카코대학을 록펠러가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중 기증인의 이름을 붙인 건물은 찾기 힘들다. 몇몇은 주로 외국인이 종교 계통을 통해 기증해서 건물명을 기증자의 이름을 붙인 것은 있지만, 대학이나 병원을 운영해서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회사업도, 자선사업도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며 병원을 설립한 다음 이를 사회에 기부하는 사회사업가들이 없다. 자기 수집품도 자기가 운영해야하고 병원도 학교도 그것을 통해 재미를 보려하는 것이 선진국과 다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산업 사회가 국제적 경쟁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대학도 선진국 수준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또한 국가의 교육, 산업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여러 부정적 요소라는 것에 대한 반대 정책을 펴 나가야겠다.